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yle, Mother-Child Interaction, Young Children's Interactive Peer Play and Problem Behaviors by Mother's Employment Status

최혜란*, 유지아**, 김선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Hea-Ran Choi(zza0202@hanmail.net)*, Ji-A Yoo(1015wldk@naver.com)**,
Seon-Mi Kim(seonmi2865@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2013)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161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모의 경우 모-자녀상호작용이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자녀와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동·가족 상담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취업여부 | 양육태도 | 모-자녀상호작용 | 또래놀이 상호작용 | 문제행동 |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look into influences to parenting style,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interactive peer play, and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by objecting 1,614 mothers having young child and also using Korea Child Panel 6th Year data (2013) having been provided from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Regarding collected dat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by using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much as warmth parenting style of mothers and child peer play interaction were high regardless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chil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ppeared to be decreased.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employed mothers and unemployed ones because mother-child interaction did not affect significant influences to child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case of employed mothers, but child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ere turned up to be increased as much as mother-child interaction was larger by affecting significant influences in case of unemployed mothers. Based on above finding,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at it provides a basic data which could be actually utilized to parent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prevent various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or child & family counseling field.

■ keyword : | Employment Status | Parenting Style | Mother-Child Interaction | Interactive Peer Play | Problem Behaviors |

1. 서론

현대사회는 빠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은 증가하고 자녀의 돌봄은 사회로 전향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취업률과 저출산율 향상을 위해 시행한 무상보육정책 등으로 인하여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취업모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에 경제적인 역할이 추가되면서 다중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큰 실정이다. 또한 비취업모 역시 가정에서 반복적인 가사일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더 안고 일을 하고 있으나[1] 가정에서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고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아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는 조기에 타인과의 관계에 노출되어 적응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형성하여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유아기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사회, 인지,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며 어머니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부정적인 문제행동이 촉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2]. 더욱이 유아의 문제행동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문제행동을 지닌 유아도 3-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유아기 시기에는 가정이나 보육기관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학령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아동기에 비해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4]. 따라서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아동기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5][6] 있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조기에 개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Achenbach와 Rescorla(2000)[7]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적 반응성, 우울, 불안, 신체증상, 위축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주의산만

이나 공격성 등의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내재화된 정서적 문제는 새로운 환경이나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8],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업이나 사회에서의 적응을 힘들게 만든다고 보고되고 있다[9][10]. 그러므로 내재화나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유아는 부모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전인적인 발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입장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형성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각적인 방면에서 모색하여 성장지향적이고 예방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유아의 개인내적 변인으로 유아의 기질[11][12], 환경적인 변인으로는 가정적 요인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13-24], 부모-자녀상호작용[25], 또래관계[26][27]를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내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방식으로서 어머니나 주양육자가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28], 어머니와 유아가 생의 초기에 관계를 통하여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부적절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인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29][30]. 조복희 등(1999)[31]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로 나누고 있는데 온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하였고, 통제적 양육태도는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태도로서 유아에게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로 유아를 대할 때는 유아에게 자율성을 기르도록 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32],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적응적인 행동이 발달하게 된다.

이처럼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어머니와 유아가 최초로 접하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임을 밝혀주고 있다[33]. 또한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이는 온정적이면서도 한계를 적절하게 설정해주는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에게 스스로 환경에 맞게 적응하도록 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해준다고 하였다[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을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는 문제행동을 덜 나타냈으며[34][35], 부모가 유아의 행동에 적절하게 한계를 설정해주는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보일 때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 반면 낮은 온정적 양육태도와 엄격하고 과잉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39]. 이와 같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초래하고 지속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지금까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살펴보고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어머니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40]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바람직한 양육행동 보인다는 연구결과[41][42],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을 보인다는 연구결과[43],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비취업모가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44],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양육태도와 상관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45] 등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태도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음

에도 이들 간의 관련성을 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일방향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행동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 이외에 유아도 하나의 주체로서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며[46] 관계를 지속하는 모-자녀상호작용은 유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들 수 있다. 모-자녀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며, 유아는 어머니의 요구에 반응을 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주도하면서 어머니와 유아가 상호호혜적으로 행동을 주고받는 중요한 관계를 의미한다[47]. 이에 어머니와 유아는 상호작용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 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이나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해 자신의 정서와 인지를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익히게 된다[48-50]. 이러한 모-자녀상호작용 과정을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설명하고 있는데[51], 유아는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이 내적표상으로 자리 잡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긍정적인 내적표상이 형성되어 타인이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나가지만, 유아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부정적인 내적표상이 형성되어 행동문제나 정서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52].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자녀에게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경우 유아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53]. 이는 모-자녀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주기도 하며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비취업모에 비해 유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5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모-자녀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모-자녀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점차 또래로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는 유아가 또래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과 규범을 습득하게 되고 사회와 정서 발달을 이루게 되므로[2], 유아의 또래놀이 행동을 통한 사회화 과정은 대인관계의 형성을 위해 유아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55].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친사회적이며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의미하는데[56],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질서를 지키고, 또래와 협력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배워 나가며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57]. 이처럼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관계를 통하여 인지적, 사회적 조절 능력이 발달하는[58] 반면, 또래와의 놀이에 어울리지 못하거나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유아는 부정적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59]. 이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어, 유아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켜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어머니의 역할도 변화해 가면서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유아는 무상보육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른 시기부터 장시간 보육기관에서 성장하게 되어 또래와의 관계가 이전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유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에도 차이가 있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60]에서는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취업모의 자녀에게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취업모의 자녀가 또래 유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61].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자녀가 또래와 관련한 상호작용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또래와의 관계형성에서도 더 친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문제행동이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와 모-자녀상호작용 및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증하여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태도, 모-자녀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태도, 모-자녀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태도, 모-자녀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2013)[62]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1614명이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829명(51.4%), 여아 785명(48.6%)이었고, 월령은 60개월 61명(3.8%), 61개월 274명(17%), 62개월 406명(25.2%), 63개월 473명(29.3%), 64개월 259명(16%), 65개월 103명(6.4%), 66개월 38명(2.3%)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 4.7%, 31-35세 이하 39.9%, 36-40세 이하 44.1%, 41세 이상 10.8%이었고, 학력은 고졸 이하가 29.2%, 전문대 졸업이 26.6%, 대졸 이상이 43.3%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모의 경우 42.8%, 비취업모는 55.5%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대상 | 항목 | 구분 | N(%) |
|------|---------|-----------|-----------|
| 유아 | 성별 | 남아 | 829(51.4) |
| | | 여아 | 785(48.6) |
| | 월령 | 60개월 | 61(3.8) |
| | | 61개월 | 274(17.0) |
| | | 62개월 | 406(25.2) |
| | | 63개월 | 473(29.3) |
| | | 64개월 | 259(16.0) |
| 65개월 | | 103(6.4) | |
| 66개월 | 38(2.3) | | |
| 어머니 | 연령 | 30세 이하 | 75(4.7) |
| | | 31-35세 이하 | 642(39.9) |
| | | 36-40세 이하 | 714(44.1) |
| | | 41세 이상 | 176(10.8) |
| | | 결측치 | 7(.5) |
| | 학력 | 고졸 이하 | 471(29.2) |
| | | 전문대 졸 | 430(26.6) |
| | | 대졸 이상 | 699(43.3) |
| | | 결측치 | 14(.9) |
| | 취업 여부 | 취업모 | 691(42.8) |
| 비취업모 | | 896(55.5) | |
| 결측치 | | 27(1.7) | |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의 검사도구를 활용하였다.

2.1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조복희와 동료들(1999)[31]이
사용한 양육방식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
문항으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등으로 이루어
진 온정적 양육태도(6문항)와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등의 통제적 양
육태도(6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로 평가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온정적
양육태도 .85, 통제적 양육태도 .76이다.

2.2 모-자녀상호작용

모-자녀상호작용은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을 이용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뒤, 제 3자에 의해 역번역한 내용을 ECLS로부터 확인
한 후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6차
년도에 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실시하였
으며,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등의 내용으
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전혀 하지 않음(1점)’, ‘1-2번(2점)’, ‘3-6번(3
점)’, ‘매일함(4점)’으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
-자녀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4이다.

2.3 또래놀이 상호작용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Fantuzzo 등
(1998)[63]이 제작하고 최혜영과 신혜영(2008)[64]이 타
당화한 PIPPS(Peer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참
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또래놀이 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만 사용하였다. 또래놀
이 상호작용은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
어가는 특성으로 ‘친구를 돕는다’ 등의 내용으로 총 9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때때로 그렇다(3점)’, ‘항
상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
수가 높을수록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긍정적임을 의미
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74이다.

2.4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7]
가 개발하고 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
(2009)[65]가 수정한 유아행동평가척도 CBCL 1.5-5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유아행동평
가척도는 내재적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수면문
제, 기타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반응성,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의 내재화 문제행동
(36문항)과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행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24문항)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내재화 문제행동
은 ‘늘 하던 일과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불안해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런 일이 있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까지의 3점 Likert 척도이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하며, 각 문항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내재화 문제행동 .87, 외현화 문제행동 .88이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와 모-자녀상호작용,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통제적 양육, 모-자녀상호작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2][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취업모 유아의 경우 .01에서 .70, 비취업모 유아의 경우 .01에서 .74로 상관은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은 취업모 1.01에서 1.48, 비취업모 1.02에서 1.45로 나타나 절대값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66].

표 2.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요인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취업모(비취업모)

| |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 모-자녀 상호작용 | 또래놀이 상호작용 | 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
|------|----------------|----------------|----------------|----------------|----------------|----------------|
| 평균 | 3.72 (3.65) | 3.48 (3.51) | 2.25 (2.32) | 3.08 (3.08) | 6.82 (7.75) | 5.84 (6.70) |
| 표준편차 | .54 (.54) | .51 (.50) | .51 (.51) | .38 (.40) | 6.11 (6.42) | 5.38 (5.64) |

표 3.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요인 간의 상관관계

| 취업모 |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 모-자녀 상호작용 | 또래놀이 상호작용 | 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
|-------------|-------------|-------------|-----------|-----------|----------|----------|
|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 | .22** | .54** | -.01 | -.22** | -.30** |
|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 .21** | | .16** | .14** | .02 | -.03 |
| 모-자녀 상호작용 | .53** | .15** | | -.01 | -.03 | -.10** |
| 또래놀이 상호작용 | .07 | -.03 | .08 | | -.12** | -.18** |
| 내재화 문제행동 | -.17** | .01 | -.05 | -.12** | | .74** |
| 외현화 문제행동 | -.25** | .07 | -.15** | -.19** | .70** | |

* p<.05, ** p<.01, *** p<.001

2.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요인

2.1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요인

본 연구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 모-자녀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모델 I 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변인을 투입하였고, 모델 II 에서는 모-자녀상호작용, 모델 III 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우선, 취업모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표 4. 취업모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요인

| 종속 변인 | 독립 변인 | 취업모 | | | | | |
|--------------------|-------------|-----------|----------|----------|----------|----------|----------|
| | | 모델 I | | 모델 II | | 모델 III | |
| | | β | t | β | t | β | t |
| 내재화 문제 행동 |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24 | -5.41*** | -.25 | -4.75*** | -.24 | -4.69*** |
| |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 .07 | 1.64 | .07 | 1.60 | .07 | 1.51 |
| | 모-자녀상호작용 | | | .02 | .41 | .03 | .53 |
| | 또래놀이 상호작용 | | | | | -.10 | -2.43* |
| R ² | | .055 | | .055 | | .066 | |
| 수정된 R ² | | .051 | | .049 | | .059 | |
| R ² 변화량 | | | | .000 | | .011 | |
| F | | 14.815*** | | 9.915*** | | 8.986*** | |

* p<.05, ** p<.01, *** p<.001

표 5. 비취업모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요인

| 종속 변인 | 독립 변인 | 비취업모 | | | | | |
|--------------------|-------------|-----------|----------|-----------|----------|-----------|----------|
| | | 모델 I | | 모델 II | | 모델 III | |
| | | β | t | β | t | β | t |
| 내재화 문제 행동 |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24 | -6.20*** | -.33 | -7.08*** | -.33 | -7.22*** |
| |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 .08 | 2.09* | .07 | 1.87 | .09 | 2.36* |
| | 모-자녀상호작용 | | | .15 | 3.36** | .15 | 3.36** |
| | 또래놀이 상호작용 | | | | | -.13 | -3.47** |
| R ² | | .058 | | .074 | | .091 | |
| 수정된 R ² | | .055 | | .070 | | .085 | |
| R ² 변화량 | | | | .016 | | .017 | |
| F | | 19.579*** | | 17.017*** | | 15.987*** | |

* p<.05, ** p<.01, *** p<.001

는 요인을 살펴보면 모델 I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변인으로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를 투입하였고, 설명력은 5.1%로 나타났다(F=14.815, p<.001). 모델 II에서는 모-자녀변인인 모-자녀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만이 여전히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F=9.915, p<.00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델 III에서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5.9%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F=8.986, p<.001). 즉, 취업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고 또래놀이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취업모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모델 I에서는 모의 양육태

도 변인으로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를 투입하였고, 설명력은 5.5%로 나타났다(F=19.579, p<.001). 모델 II에서는 모-자녀변인인 모-자녀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에 대비하여 1.5% 유의미하게 증가한 7.0%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F=17.017, p<.00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델 III에서는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변인 모두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I에 대비하여 1.5% 유의미하게 증가한 8.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F=15.987, p<.001).

즉, 취업모의 경우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β = -.24, p<.001)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β = -.10, p<.05)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β = .33, p<.001), 모-자녀상호작용(β = .15, p<.0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β = -.13, p<.01),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β = .09, p<.05) 순으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모-자녀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모와 자녀가 상호작용을 할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2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요인

본 연구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표 7]과 같다.

본 연구의 모델 I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변인을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모-자녀상호작용, 모델 III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6. 취업모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요인

| 종속 변인 | 독립 변인 | 취업모 | | | | | |
|--------------------|-------------|-----------|----------|-----------|----------|-----------|----------|
| | | 모델 I | | 모델 II | | 모델 III | |
| | | β | t | β | t | β | t |
| 외현화 문제 행동 |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33 | -7.84*** | -.31 | -6.08*** | -.30 | -6.04*** |
| |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 .13 | 3.16** | .14 | 3.21** | .13 | 3.10** |
| | 모-자녀상호작용 | | | -.05 | -1.00 | -.04 | -.72 |
| | 또래놀이 상호작용 | | | | | -.16 | -3.89*** |
| R ² | | .112 | | .113 | | .139 | |
| 수정된 R ² | | .108 | | .108 | | .132 | |
| R ² 변화량 | | .112 | | .001 | | .026 | |
| F | | 32.218*** | | 21.747*** | | 20.549*** | |

* p<.05, ** p<.01, *** p<.001

표 7. 비취업모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요인

| 종속 변인 | 독립 변인 | 비취업모 | | | | | |
|--------------------|-------------|-----------|----------|-----------|----------|-----------|----------|
| | | 모델 I | | 모델 II | | 모델 III | |
| | | β | t | β | t | β | t |
| 외현화 문제 행동 |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31 | -8.13*** | -.36 | -7.95*** | -.37 | -8.22*** |
| |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 .03 | .78 | .03 | .65 | .05 | 1.39 |
| | 모-자녀상호작용 | | | .09 | 1.97* | .09 | 1.98* |
| | 또래놀이 상호작용 | | | | | -.27 | -5.13*** |
| R ² | | .095 | | .100 | | .136 | |
| 수정된 R ² | | .092 | | .096 | | .130 | |
| R ² 변화량 | | .093 | | .006 | | .034 | |
| F | | 33.416*** | | 23.675*** | | 25.039*** | |

* p<.05, ** p<.01, *** p<.001

먼저, 취업모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모델 I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변인으로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를 투입하였고, 설명력은 10.8%로 나타났다(F=32.218, p<.001). 모델 II에서는 모-자녀변인인 모-자녀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여전히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F=21.747, p<.00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델 III에서는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또래놀이 상호작용, 통제적 양육태도, 순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I에 대비하여 2.4% 유의미하게 증가한 13.2%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F=20.549, p<.001).

다음으로, 비취업모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모델 I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변인으로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를 투입하였고, 설명력은 9.2%로 나타났다(F=33.416, p<.001). 모델 II에서는 모-자녀변인인 모-자녀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변인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에 대비하여 0.4% 유의미하게 증가한 9.6%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F=23.675, p<.00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델 III에서는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변인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I에 대비하여 3.4% 유의미하게 증가한 13%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F=25.039, p<.001).

이를 통해 취업모의 경우는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beta = -.30, p<.001$)와 통제적 양육태도($\beta = .13, p<.0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beta = -.16, p<.001$)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 중에서 온정적 양육태도($\beta = -.37, p<.00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beta = -.27, p<.001$), 모-자녀상호작용($\beta = .09, p<.05$) 순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경우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취업모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모-자녀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오히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에 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역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유아를 대상으로 모의 양육태도와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

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 모-자녀간, 유아 또래간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 높은 상호작용 방법을 보급할 수 있는 현장을 마련하여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동·가족 상담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많을수록,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어머니의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3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애정욕구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기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아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애정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내재화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놀이성이 증가할수록 문제행동은 감소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6]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또래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유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밝힌 주장[67]에 근거해 볼 때, 유아의 사회적 관계는 유아가 성장하면서 점차 모와의 관계에서 또래와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유아의 기본적인 욕구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자녀양육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유아에게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모-자녀상호작용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동일하게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서는 관련이 없었으나 모-자녀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모-자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어머니가 유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이 증가되고 감소되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유아가 모-자녀 상호작용을 통해 주의집중을 잘 하지 못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명확한 문제행동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모-자녀상호작용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보다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인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반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모-자녀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동일하게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된다는 연구[4][36]와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6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가 온정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

육할수록 유아의 걱정과 불안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연구[35][69]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출생초기부터 시작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유아의 적응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주장[70]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출생초기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유아기까지 영향을 미쳐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출생초기부터 시작되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인 만큼 결혼 전 예비부모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며 어머니는 유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온정적인 양육을 통해 유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형성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하고 자녀의 양육이 사회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대리양육자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온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실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양육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유아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비취업모의 경우는 가정에서 받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아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에게 공동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변인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놀이 상호작용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은 집단에 소속되어 타인과 정서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통해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성취된다는 욕구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71]. 유아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놀이를 통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지만, 유아가 또래와 어울리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려워[72]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

로 부정적 정서인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표출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친사회적인 특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73]와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일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연구[34]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또한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72]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관계에서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배우고 따르면서 또래집단에 수용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형성하면 내재화 문제행동도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의 교사는 유아에게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유아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유아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유아에게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유아의 또래관계 문제를 파악해서 중재를 하여 유아가 또래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인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한 반면, 모-자녀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 양육방식을 할수록 주의집중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적어진다고 보고한 연구[23]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적대공격성과 과

인행동-산만함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2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연구[35][74]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유아와 같이 지낼 시간이 많으므로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사용하여 시간을 가지고 유아를 대하면 유아는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자신의 행동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주의산만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서와 같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래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발달되어야 하므로 언어발달이 중요한데, 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75][76]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유아는 사회적인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유아는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한 의미로 여겨진다.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사나 부모와 연계하여 유아가 또래놀이 상황에서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아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은 모델링을 통하여 가르쳐 주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편 모-자녀상호작용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취업모에게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상관관계에서는 비취업모-자녀 상호작용과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회귀모델에서 어머니의 양육변인을 통제하고 모-자녀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모-자녀상호작용을 단독변인으로 투입하면 부적적인 관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에서 모-자녀상호작용은 민감성, 반응성,

표현성 등의 하위 내용이 필요하나 본 연구의 척도에서는 모-자녀상호작용의 빈도만을 체크하여 상호작용의 양적인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비취업모의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취업모의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작용의 질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아와 함께 지낼 시간이 부족한 취업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가 보이는 행동은 강도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빈도의 총합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하고[77]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취업모의 경우에만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통제적인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78]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제를 할 때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79]와 반면에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80]에 의해 통제적 양육행동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모의 경우, 양육태도에서 유아를 온정적으로 양육하는 태도를 통해 유아와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 통제적 양육방식도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취업모나 비취업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성을 시사해주어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나 비취업모를 위해 일차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기관들을 통하여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양육태도가 어떠한지를 인식하게 하고, 이차적으로 부모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될 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보다 온정적이고 따뜻한 양육태도가 유아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영향을 주어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으로 안정된 정서는 유아의 안정된 정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할 수 있도록 유아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태도 다음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유아는 점차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또래의 관계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교육이나 보육기관의 교사는 유아에게 또래와의 놀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셋째, 모-자녀상호작용이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모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미비하지만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는 일방향적인 관계이지만 모-자녀상호작용은 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양방향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의 양육태도만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자녀상호작용은 비취업모에게만 모-자녀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유아의 성장하면서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습득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보고 있으나 후속연구에

서는 부모를 포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떻게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변인만 포함시켰으나 유아의 개인내적 변인인 유아의 기질을 포함시켜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호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나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상호작용 척도는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모-자녀상호작용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비한 면이 있다. 또한 유아는 언어적인 발달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관찰을 통한 상호작용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자녀상호작용 척도의 하위구성요인을 양적인 부분의 체크보다는 민감성, 반응성, 주도성 등 세부적인 요소로 구성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구분하여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의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 변인들이 한 모델 안에서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참고 문헌

- [1] 손수민,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9권, 제1호, pp.331-357, 2012.
- [2] K. H. Rubin, W. M. Bukowski, and J. G. Parker,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John Wiley & Sons, 1998.
- [3]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 조절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9권, 제5호, pp.133-150, 2008.
- [4] 우애리,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유아의 의도적통제의 매*

- 개호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5] A. Angold and H. L. Egger, "Preschool psychopathology: Lessons for the lifespan," *J.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8, No.10, pp.961-966, 2007.
- [6] M. A. Barnett and L. V. Scaramella, "Mothers' parenting and child sex differences in behavior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preschoolers," *J. of Family Psychology*, Vol.27, No.5, pp.773-783, 2013.
- [7] T. M. Achenbach and L. A. Rescorla,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 1/2-5. ASEB.*, University of Vermont, 2000.
- [8] R. J. Coplan, A. DeBow, B. H. Schneider, and A. A. Graham, "The social behaviours of inhibited children in and out of preschool," *British J.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7, No.4, pp.891-905, 2009.
- [9] 지성애, 김성현, "유아의 행동문제와 인지능력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연구*, 제34권, 제3호, pp.197-219, 2014.
- [10] K. A. Dodge, J. D. Coie, and D. Lynam,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John Wiley & Sons, 2006.
- [11] 이순자, 유수옥,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제16권, 제6호, pp.127-157, 2012.
- [12] 이정숙, 문보경, "유아의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3권, 제4호, pp.55-74, 2010.
- [13] 강지현, 오경자,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6권, 제1호, pp.1-21, 2011.
- [14] 공영숙, 임지영,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32권, 제2호, pp.351-375, 2012.
- [15] 권혜진, 전숙영,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6호, pp.79-96, 2015.
- [16] 김은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육아지원연구*, 제11권, 제1호, pp.5-28, 2016.
- [17] 김종훈, 성지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문제행동 개인차와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34권, 제6호, pp.391-410, 2014.
- [18] 류관열,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23권, 제3호, pp.289-298, 2014.
- [19] 성혜원, 한세영,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심리·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4호, pp.271-292, 2015.
- [20]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제36권, 제2호, pp.243-269, 2016.
- [21] 이선영, 조민규, 김춘경, "어머니의 대모예착, 정신건강, 양육태도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제15권, 제4호, pp.155-177, 2015.
- [22] 임현주,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5권, 제2호, pp.97-115, 2015.
- [23] 임현주,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변인 군집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차이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6권, 제1호, pp.37-55, 2016.
- [24] 홍현재, 문혁준,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pp.245-274, 2013.

- [25] 서귀남,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훈련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6] 박상선, 서현아, “유아의 놀이성 및 창의적 성격 특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4호, pp.119-132, 2014.
- [27] E. Reitz, M. Deković, A. M. Meijer, and R. C. Engels,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bes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esting bidirectional effects,” *J. of Early Adolescence*, Vol.26, No.3, pp.272-295, 2006.
- [28] 김정희, 문혁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1호, pp.115-129, 2006.
- [29] 이은주,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 pp.173-202, 2010.
- [30] A. K. Albrecht, N. L. Galambos, and S. M. Jansson,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 panel study examining direction of effects,” *J.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6, No.5, pp.673-684, 2007.
- [31]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10호, pp.123-133, 1999.
- [32] A. Bernier, S. M. Carlson, and N. Whipple, “From external regulation to self regulation: Early parenting precursors of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Vol.81, No.1, pp.326-339, 2010.
- [33] 김민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공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34]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유아의 기질, 또래유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7권, 제4호, pp.139-162, 2010.
- [35] 박혜미,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녀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6] 김정희, 문혁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10호, pp.23-38, 2004.
- [37] 공영숙,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38] 권정윤, 김은희, “통제적인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과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학논집*, 제18권, 제6호, pp.333-361, 2014.
- [39] K. H. Rubin, P. D. Hastings, S. L. Stewart, H. A. Henderson, and X. Chen,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Vol.68, No.3, pp.467-483, 1997.
- [40] 김영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광주 시내 어린이집 아동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41] 이경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pp.127-145, 2011.
- [42] 이주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간의 관계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47권, 제5호, pp.35-48, 2009.
- [43] 장공자, *취업모의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44] 정태연, 노현정,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권, 제2호, pp.211-231, 2005.
- [45] 김원희,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성취동기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46] 방경숙, 권미경, 박성희, “모아상호작용의 측정에 대한 고찰,” *간호학의 지평*, 제8권, 제1호, pp.20-31,

- 2011.
- [47] 박성희, 방경숙, “모아상호작용(Mother-Child Interaction)에 대한 개념 분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제17권, 제2호, pp.120-126, 2011.
- [48] S. D. Calkins,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59, No.2-3, pp.53-72, 1994.
- [49] L. A. Sroufe, “The coherence of individual development: Early care, attachment, and subsequent developmental issues,” *American Psychologist*, Vol.34, No.10, pp.834-841, 1979.
- [50] R. A. Thompson,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59, No.2-3, pp.25-52, 1994.
- [51]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Basic Books, 1973.
- [52] 송영혜, *또래관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 [53] K. E. Clark, and G. W. Ladd,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 - 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6, No.4, p.485, 2000.
- [54] 김애란, *취업모를 위한 on & off-line 통합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55] 배조경, *어머니 역할기능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6] J. Fantuzzo, B. Sutton-Smith, K. C. Coolahan, P. H. Manz, S. Canning, and D. Debnam,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10, No.1, pp.105-120, 1995.
- [57] 조운주, 김은영,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제8권, 제2호, pp.155-174, 2014.
- [58] C. Howe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sequences,” *Developmental Review*, Vol.7, No.3, pp.252-272, 1987.
- [59] J. Fantuzzo, Y. Sekino, and H. L. Cohen, “An examination of the contributions of interactive peer play to salient classroom competencies for urban head start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41, No.3, pp.323-336, 2004.
- [60] 강인숙, 문혁준, “어머니의 부모역할기능 및 놀이신념과 유아리더십이 유아또래놀이활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제16권, 제5호, pp.233-252, 2012.
- [61] 문혁준,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30권, 제2호, pp.57-69, 2009.
- [62]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2013.
- [63] J. Fantuzzo, K. Coolahan, J. Mendez, P. McDermott, and B. Sutton-Smith,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13, No.3, pp.411-431, 1998.
- [64] 최혜영, 신혜영,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제29권, 제3호, pp.303-318, 2008.
- [65] 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 “한국판 CBCL 1.5-5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8권, 제1호, pp.117-136, 2009.
- [66] 박용권, *SPSS 사회복지자료분석*, 서울: 신정, 2010.
- [67] R. J. Havighurst,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task concept,” *The School Review*, Vol.64, No.5, pp.215-223, 1956.

[68] 김춘경, 조민규,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6호, pp.171-195, 2015.

[69] 최미나, 신나나,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2호, pp.283-310, 2015.

[70] J. E. Bates and K. Bayles,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253-299, 1988.

[71]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J. of Consulting Psychology, Vol.19, No.1, p.77, 1955.

[72] S. A. Denham and M. McKinley, “Sociometric nominations of preschoolers: A psychometric analysi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Vol.4, No.2, pp.109-122, 1993.

[73] 김재화,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문제행동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역할,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74] 최미숙, 공진희, 박은영,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제4권, 제2호, pp.33-52, 2012.

[75] 오문자, “사회적 차원의 인지 행위로서 유아 학급담화,”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pp.129-156, 2011.

[76] 우수경, “유아의 기질, 언어·인지발달,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따른 놀이행동과 그 성별차이,” 제16권, 제4호, pp.863-884, 2006.

[77] 송하나, “아동의 상호작용 주도성이 모자상호작용에서 어머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제18권, 제4호, pp.19-33, 2011.

[78] 임선아, 임효진,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과 유아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 한국영유아보육학, 제90권, 제1호, pp.159-184, 2015.

[79] 장영애, 이영자,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3호, pp.619-629, 2009.

[80] 이찬숙,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저 자 소 개

최혜란(Hea-Ran Choi)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석사)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수료)
- 2016년 6월 ~ 현재 : 전주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사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상담

유지아(Ji-A Yoo)

정회원



- 2015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가족상담, 가족복지, 가족관계

김선미(Seon-Mi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석사)
- 2013년 8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수료)
- 2013년 6월 ~ 현재 : 우주어린이집 원장

<관심분야> : 유아교육, 부모교육, 가족관계